

연말 특집 ②

'만약에...' 가정으로 엿본 국민생각

만약에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다면?

- 성별 : '지금과 같은 성' 66% vs '지금과 다른 성' 34%
- 태어날 나라 : '대한민국' 53% vs '다른 나라' 47%
- 태어날 지역 : '서울' 62% vs '서울 외 지역' 38%
- 부모 : '가난하지만 존경받는' 65% vs '부자지만 비난받는' 35%
- 외모와 재능 : '외모 뛰어난' 31% vs '재능 뛰어난' 69%

만약에 인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?

- 초등학교생이라면, 성인 된 후 직업 : 1위, 법률 전문가
- 20살이라면, 삶의 방식 : 가늘고 길게 56% vs 굵고 짧게 44%
- 20대라면, 취업 : '초봉 4천 대기업' 66% vs '매월 2백 무직자' 34%
- 결혼적령기라면, 결혼 : '하겠다' 55% vs '하지 않겠다' 45%
- 고등학생 자녀 둔 장년 : '성적' 21% vs '하고싶은 것' 79%
- 재산 있는 노년 : '자식에게' 75% vs '사회환원' 25%

만약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?

- '지구온난화 문제 해결' 72% vs '북한 핵 문제 해결' 28%
- '코로나19 종식' 68% vs '부동산 가격 하락' 32%
- '능력위주 사회' 66% vs '배려하는 사회' 34%
- '아이 범죄사실 없애겠다' 16% vs '합당한 벌 받게' 84%
- 국회 구성, '능력 뛰어난 서민' 37% vs '서민편 전문가' 63%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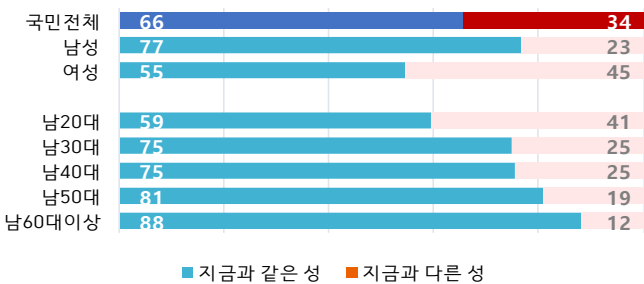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↳ 만약에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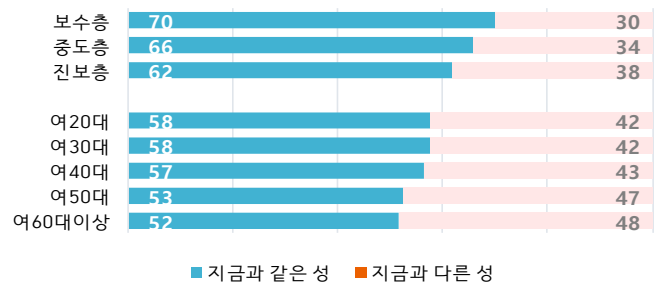
※ 성별 : '지금과 같은 성' 66% vs '지금과 다른 성' 34%

- ▶ 우리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성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"만약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지금과 같은 성별로 태어나겠다'는 응답이 66%, '지금과 다른 성별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은 34%로 나타남
- ▶ 그러나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7%가 '지금과 같은 성별로 태어나겠다'라고 응답한 데 비해 여성은 55%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 - 남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'지금과 같은 성별'이라는 응답이 높아졌고,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'지금과 다른 성'이라는 응답이 높아짐
 - 주부 계층에서도 '지금과 같은 성' 51% vs '지금과 다른 성' 49%로 의견이 팽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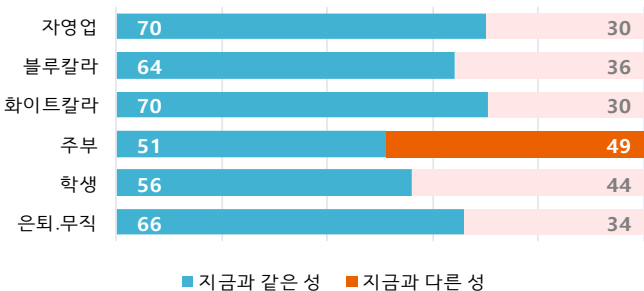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:
국민전체, 성별, 남자 연령별 (자료: 케이 스탯, 2020.12.06 조사, 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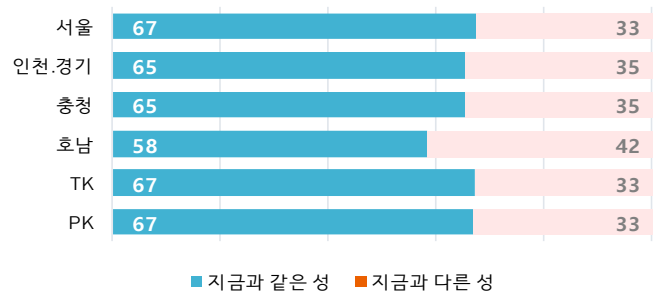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:
이념별, 여자 연령별 (단위:%)



만약에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: 직업별 (단위:%)



만약에 태어날 때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: 지역별 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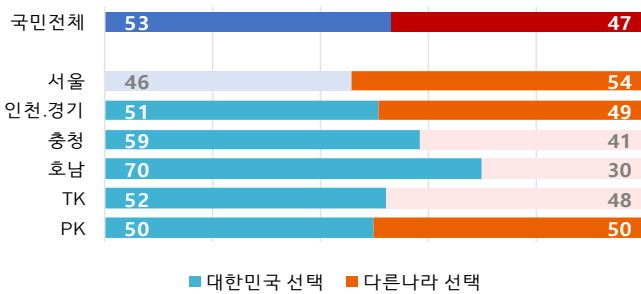
- ☑ 현재 자신의 성별에 대해 남성은 만족도가 높지만, 여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: 이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들이 고통받은 결과로 보임
 - : 특히 여자 60대 이상이 '지금과 다른 성'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은(48%)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됨
- ☑ 흥미로운 점은 20대 남녀의 응답인데, '지금과 다른 성'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0대 남성은 41%, 20대 여성은 42%로 거의 비슷함
 - : 이는 양성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현실에 대해 여성은 '여전히 부족하다'고 생각하고, 남성은 '역차별이다'라는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

※ 태어날 나라 : '대한민국' 53% vs '다른 나라' 47%

- ▶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점에 대해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
- ▶ “만약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’라는 응답이 53%이고, ‘다른 나라를 선택하겠다’라는 응답은 47%로 조사됨
- ▶ ‘대한민국 선택’과 ‘다른 나라 선택’이 팽팽한 계층은 △인천.경기, PK 지역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 중·고소득층 △남자 30대 △여자 60대이상 등임
- ▶ ‘대한민국 선택’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충청, 호남, TK 지역 △중도층, 진보층 △200~400만원 미만 소득층 △남자 20대, 남자 4060세대 △여자 40대 등임
- ▶ ‘다른 나라 선택’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서울 △보수층 △여자 2030세대, 여자 50대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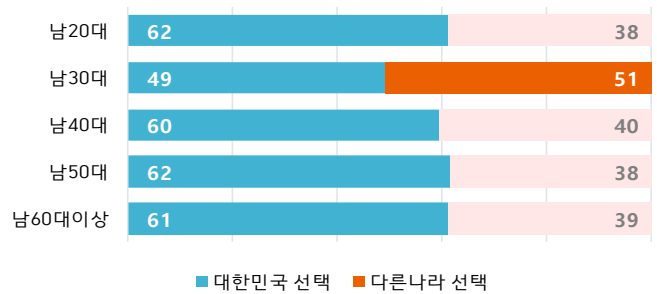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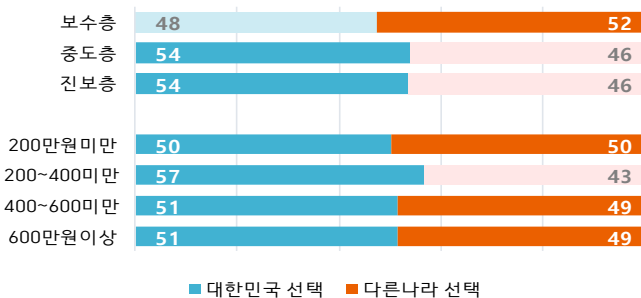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: 남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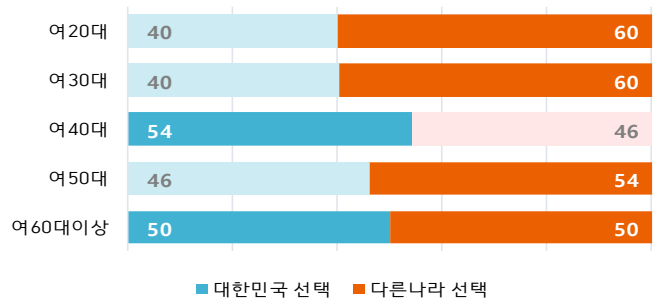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: 이념별 소득별

(단위:%)



만약에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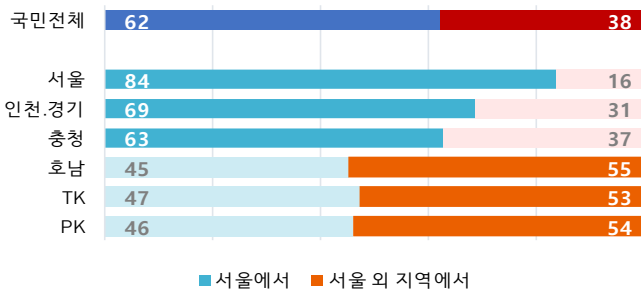
- ☑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·사회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
 - ▶ 이른바 ‘애국심’,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‘자긍심’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질문에서 ‘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’라는 응답이 국민 전체적으로 53%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임
- ☑ 계층별로 살펴봐도 호남(70%)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 걸쳐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계층이 없어,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
 - ▶ 보수층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, 여자 2030세대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
※ 태어날 지역 : '서울' 62% vs '서울 외 지역' 38%

- ▶ 태어날 지역에 있어서는 '서울'이 62%로 높게 나타나, 우리 국민들의 '서울 지향성'이 재차 확인됨
- ▶ "만약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지역을 고를 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서울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이 62%이고, '서울 외 지역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은 38%로 나타남
- ▶ 지역별로 살펴보면 '서울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이 우세한 곳은 서울, 인천.경기, 충청 등이고 '서울 외 지역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은 호남, TK, PK 등으로 조사됨
- 호남, TK, PK 등도 '서울 외 지역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 비중은 각각 55%, 53%, 54%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침
- ▶ 그 외 이념별, 소득별, 남녀 연령별 모두에서 '서울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- ▶ '서울에서 태어나겠다'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여자 2050세대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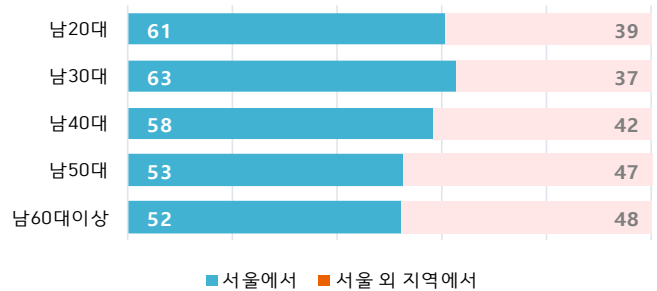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지역을 고를 수 있다면 : 국민전체 지역별

(자료:케이마켓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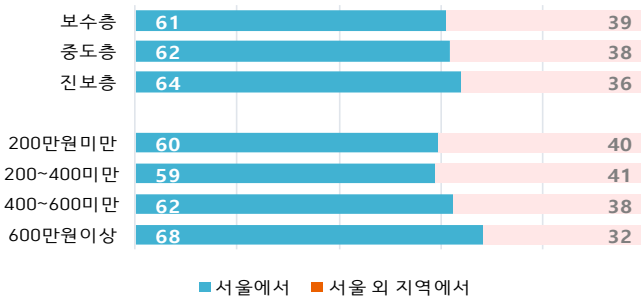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지역을 고를 수 있다면 : 남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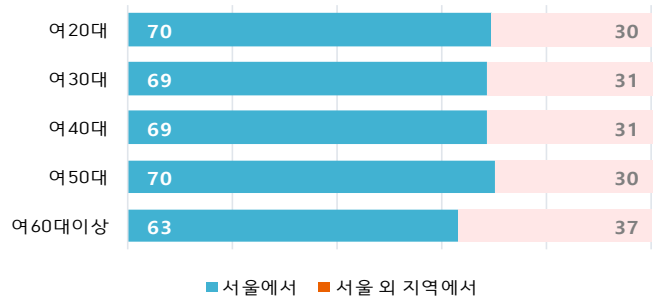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 때 지역을 고를 수 있다면 : 이념별 소득별

(단위:%)



만약에 태어날 때 지역을 고를 수 있다면 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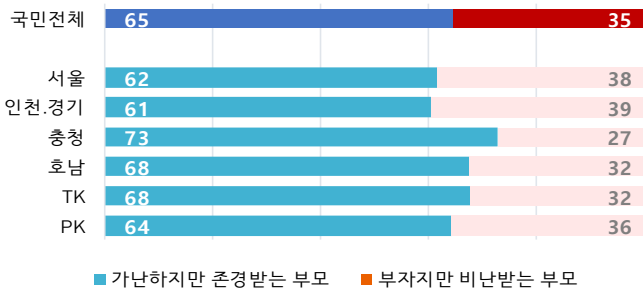
- ☑ 대한민국은 이른바 '서울 공화국'이라는 말처럼 서울 집중 현상이 과도하고, 국민 여론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 - : 인천과 경기도 인구가 많은 것 역시 서울에 가까워서이며,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음
- ☑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(수도 이전, 공공기관 이전 등)가 있었지만, 서울 집중 현상은 여전한
 - : 지금의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이러한 서울 집중 현상의 부작용 중 하나임
- ☑ 국민들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,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임

※ 부모 : '가난하지만 존경받는' 65% vs '부자지만 비난받는' 35%

- ▶ “만약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’가 65%로 ‘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’(35%)보다 높게 조사됨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서 ‘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’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충청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5060세대 △여자 60대이상 등임
- ▶ 이에 비해 ‘부자지만 존경받는 부모’가 우세한 계층은 △여자 2030세대임
 - 남자 2030세대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(각각 45%, 4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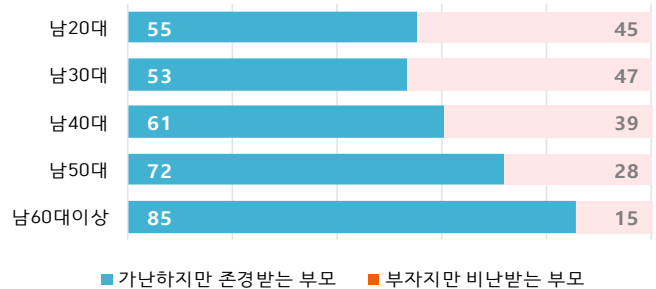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때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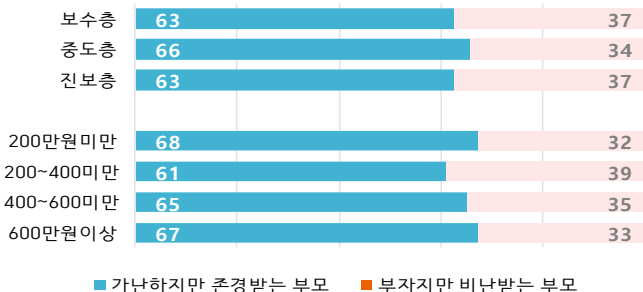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때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 : 남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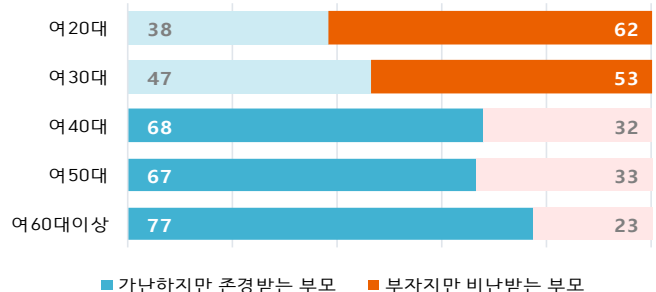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때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 : 이념별·소득별

(단위:%)



만약에 태어날때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 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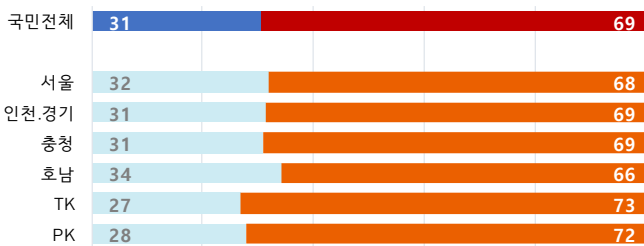
- ☑ 이 질문은 '물질'을 우선하느냐, '사회적 평판'을 우선하느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인데, 우리 국민들은 '사회적 평판'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: 여기에는 부유층의 이른바 '갑질'이 다수 보도되면서(한진그룹 일가 등) 부유층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- ☑ 그러나 남녀 2030세대의 응답을 놓고 볼 때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남
 - : 여자 2030세대는 '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'라는 응답이 우세하고, 남자 2030세대 역시 그 응답 비중이 매우 높음(각각 45%, 47%)
 - : 여기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상실감과 이른바 '부모 찬스'라고 일컬어지는 부유층 자녀의 각종 특혜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 - : 즉, 2030세대의 이러한 인식을 '물질 맹신주의'라고 비난하기보다 기성세대의 자성과 사회적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임

※ 외모와 재능 : '외모 뛰어난' 31% vs '재능 뛰어난' 69%

- ▶ 우리 국민들은 '외모'와 '재능' 중에서 '재능'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"만약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 외모와 재능을 고를 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외모는 뛰어나지만 별 재능이 없는 나' 31% vs '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' 69%로 조사됨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서 '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'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TK △보수층 △남자 5060세대 △여자 4060세대 등임
- ▶ 이에 비해 '외모는 뛰어나지만 재능이 없는 나'가 우세한 계층은 △여자 20대임
- ▶ 남자 20대는 '외모'와 '재능'이 각각 49% vs 51%로 팽팽하게 나타났으며, 남자 30대 역시 '외모' 48% vs '재능' 52%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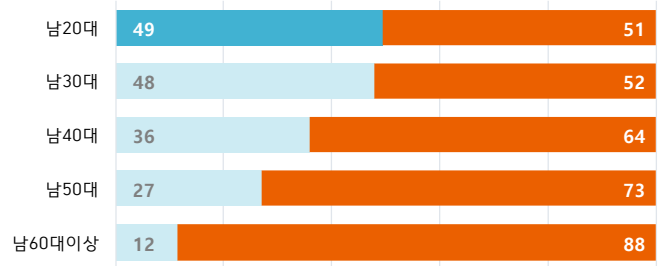
만약에 태어날때 외모재능 고를 수있다면 : 국민전체,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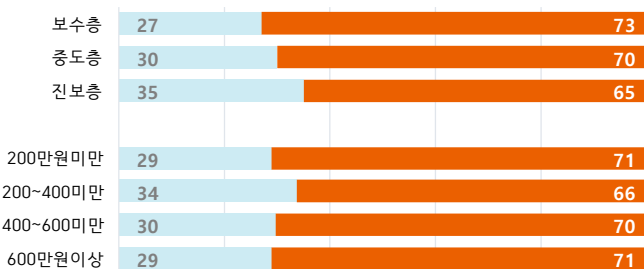
■ 외모는 뛰어나지만 별 재능이 없는 나 ■ 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

만약에 태어날때 외모재능 고를 수있다면 : 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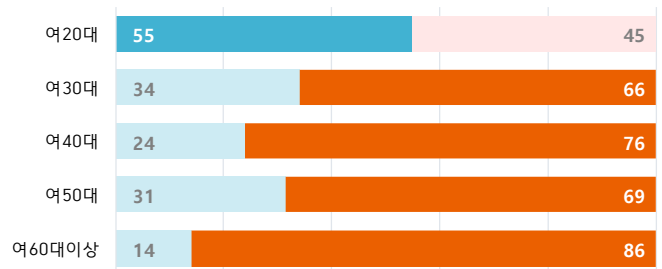
■ 외모는 뛰어나지만 별 재능이 없는 나 ■ 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

만약 태어날때 외모재능 고를 수있다면 : 이념별,소득별 (단위:%)



■ 외모는 뛰어나지만 별 재능이 없는 나 ■ 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

만약에 태어날때 외모재능 고를 수있다면 : 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■ 외모는 뛰어나지만 별 재능이 없는 나 ■ 외모는 별로지만 재능이 뛰어난 나

Kstat Point

- ☑ 국민 다수는 '외모'와 '재능' 중에 '재능'을 중시하고 있어, 이른바 '외모 지상주의'에서 탈피해 있는 양상임
- ☑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2030세대의 응답은 국민 전체와 다르게 나타남
 - : 여자 20대는 '외모'라는 응답이 우세하고, 남자 2030세대도 '외모'라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함
 - : 이들 세대가 학창시절은 물론 회사 면접 등 기성세대와의 다양한 접촉 과정에서 '외모 지상주의'를 경험한 결과로 분석됨
- ☑ 또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 획일화된 기준을 강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 - : 한국사회는 사회통념이라는 이름의 '뚜렷한 기준'이 형성되어 있고,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할 경우 '사회 부적응자'라는 비난이 왕왕 발생하는 등 개성표출이 힘든 사회로 평가받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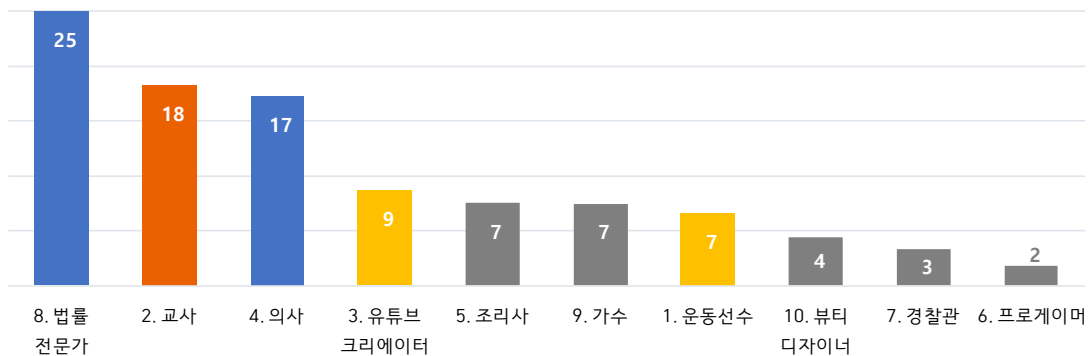
▣ 만약에 인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?

※ 초등학생이라면, 성인 된 후 직업 : 1위, 법률 전문가

- ▶ 국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'법률 전문가(판사.검사.변호사)'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- ▶ "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이고, 성인이 된 후 내 직업을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법률 전문가(판사.검사.변호사)'가 25%로 1위를 차지했으며, 2위 교사(18%), 3위 의사(17%) 순으로 나타남
 - 다음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9%, 조리사(요리사) 7%, 가수 7%, 운동선수 7%, 뷰티 디자이너 4%, 경찰관 3%, 프로그래머 2% 순임
- ▶ 지문으로 제시된 10개 직업과 앞에 붙은 숫자는 '2019년 초등학생 희망직업군 순위'(자료, 교육부)인데 초등학생이 1위로 꼽은 운동선수는 국민전체적으로 7위에 그치는 등 현재 초등학생과 18세이상 국민(본 조사대상)과의 인식 차이가 나타남
 - 국민전체적으로 1위로 나타난 법률 전문가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군에서 8위로 하위권임
- ▶ 현 초등학생과 국민전체 의견이 비슷한 직업은 교사로, 초등학생 희망 직업군에서도 2위이고 국민전체에서도 2위를 기록함
 - 초등학생 희망 직업군 4위인 의사도 국민전체적으로 3위를 기록해 비슷한 의견을 보임

초등학생이고, 성인 된 후 직업 지금 선택가능하다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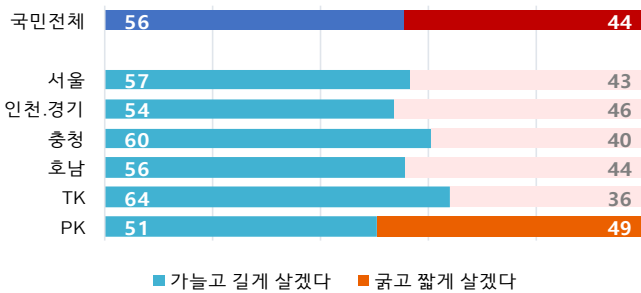
- ☑ 우리 국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직업은 판사.검사.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
 - : 법률 전문가는 그 직업 자체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진출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국민적 인식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(단적인 예로 노무현,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변호사 출신임)
- ☑ 교사가 2위를 차지한 것은 직업의 '안정성'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, 의사가 3위를 기록한 것은 높은 수입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임
 - : 이상적인 결혼 상대 직업군 조사에서 '공무원.공사직'이 남녀 모두 1위이고, 2위는 일반 사무직, 3위는 교사로 나타난 것도 '안정성' 중시 흐름의 결과로 분석됨(자료, 결혼전문정보회사 듀오, 2019년)

※ 20살이라면, 삶의 방식 : 가늘고 길게 56% vs 굵고 짧게 44%

- ▶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인 '가늘고 길게 살겠다'와 '굵고 짧게 살겠다'는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은 '가늘고 길게 살겠다'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
- ▶ "만약에 내가 20살이고,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가늘고 길게 살겠다'는 의견이 56%로 '굵고 짧게 살겠다'(44%)보다 높게 조사됨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서 '가늘고 길게 살겠다'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TK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3040세대 등임
- ▶ '굵고 짧게 살겠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60대이상 이고, 의견이 팽팽히 맞선 계층은 △PK △진보층 △여자 2030세대 등임
- 여성 계층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 걸쳐 두 의견 간 격차가 적은 특징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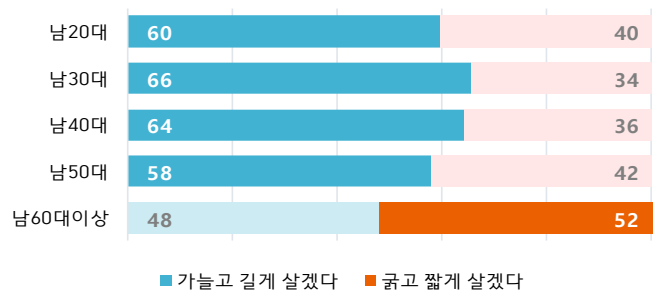
20살이고, 삶의 방식 선택할 수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

(자료:케이시넷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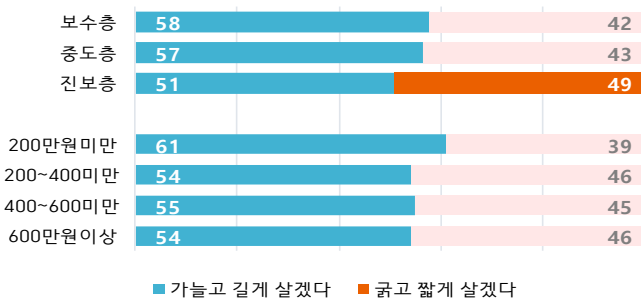
20살이고, 삶의 방식 선택할 수 있다면 : 남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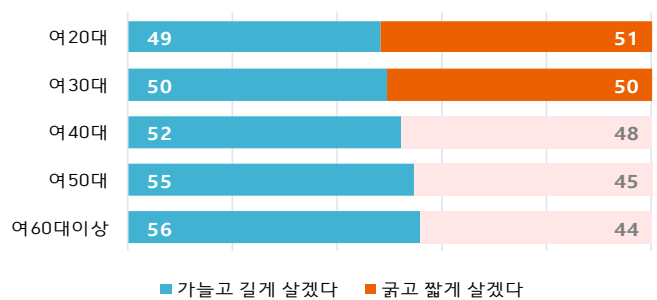
20살이고, 삶의 방식 선택할 수 있다면 : 이념별,소득별

(단위:%)



20살이고, 삶의 방식 선택할 수 있다면 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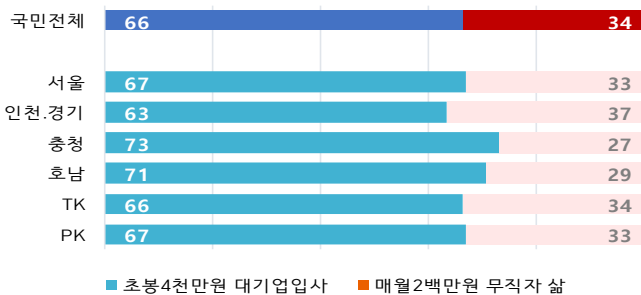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전반적으로 남성은 '가늘고 길게 살겠다'는 의견이 높고, 여성은 '굵고 짧게 살겠다'는 의견이 높음 :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만 '굵고 짧게 살겠다'는 의견이 소폭 높음
- ☑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, 여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'굵은' 성과를 일궈내는 삶이라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- ☑ 국민 전체적으로도 '굵고 짧게 살겠다'는 의견이 44%로 상당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, 이 역시 여성이 느끼는 바와 같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'굵은'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읽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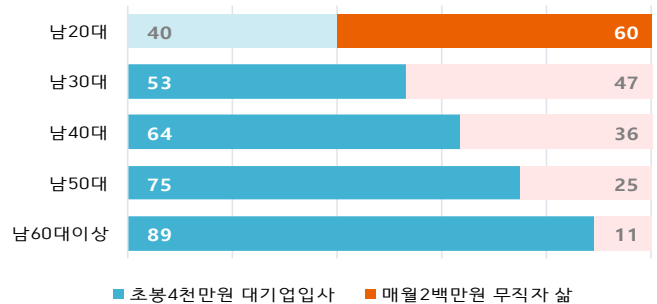
※ 20대라면, 취업 : '초봉 4천 대기업' 66% vs '매월 2백 무직자' 34%

- ▶ “만약에 내가 취업을 앞둔 나이(20대)이고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초봉 4천만원 대기업 입사’가 66%로 ‘매월 2백만원씩 지원받는 무직자의 삶’(34%)보다 높게 나타남
- 참고로 초봉 4천만원은 2019년 대기업 초봉 수준이고, 2백만원은 실업급여 월 최고액인 204만원 수준임
- ▶ 거의 모든 계층에서 ‘초봉 4천만원 대기업 입사’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, 특히 응답이 높은 계층은 △충청 △보수층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남자 5060세대 △여자 5060세대 등임
- ▶ ‘매월 2백만원씩 지원받는 무직자의 삶’이 우세한 계층은 △남자 20대 △여자 2030세대 등임
- 남자 30대의 경우 ‘초봉 4천만원 대기업 입사’ 53% vs ‘매월 2백만원 무직자’ 47%로 격차가 크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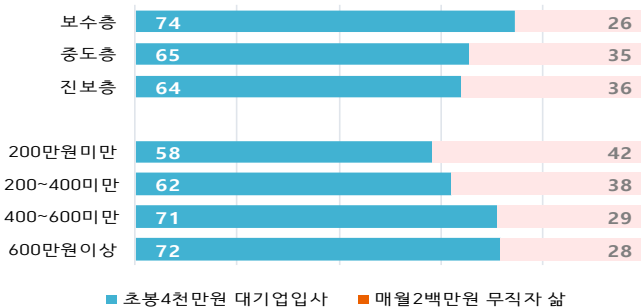
취업연령(20대)이고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 (자료:케이 스탯, 2020.12.06조사, 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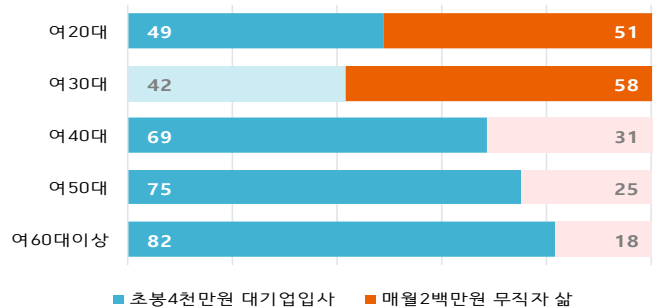
취업연령(20대)이고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면 : 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취업연령(20대)이고 선택할 수 있다면 : 이념별.소득별 (단위:%)



취업연령(20대)이고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면 : 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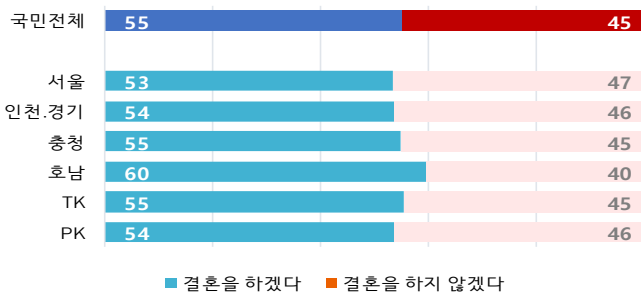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이 질문의 경우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차이가 대비되고 있음
 - :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 승진하는 삶이 일반적이던 시대를 산 5060세대의 경우 ‘초봉 4천만원 대기업 입사’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☑ 그러나 2030세대의 경우 5060세대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도 상당하지만 ‘매월 2백만원씩 지원받는 무직자의 삶’을 살겠다는 사람 역시 많음
 - : 남자 20대와 여자 2030세대는 ‘무직자의 삶’ 의견이 더 높고, 남자 30대도 47%로 절반에 육박함
- ☑ 이는 5060세대가 사회생활을 하던 시대와 달리 ‘평생직장’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조기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과, 승진을 위해 ‘치열한 경쟁’을 벌이는 삶의 압박감을 거부하는 흐름으로 보임
 - : 얼마 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진 ‘소확행’,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조사결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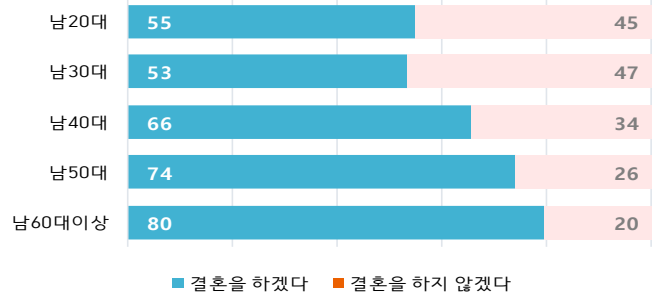
※ **결혼적령기라면, 결혼 : '하겠다' 55% vs '하지 않겠다' 45%**

- ▶ “만약에 내가 결혼적령기(20.30대)이고,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결혼을 하겠다’라는 응답이 55%이고,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가 45%로 조사됨
- ▶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‘결혼을 하겠다’는 응답이 우세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 2040세대는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응답이 우세한 특징을 보임
 - 여자 5060세대의 경우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, 남자 5060세대에 비해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음
- ▶ 그외 지역별, 이념별로는 모두 ‘결혼을 하겠다’는 의견이 우세함
 - 소득별로는 400만원 미만 계층은 ‘결혼을 하겠다’,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의견이 팽팽하고, 400만원 이상 계층은 ‘결혼을 하겠다’는 의견이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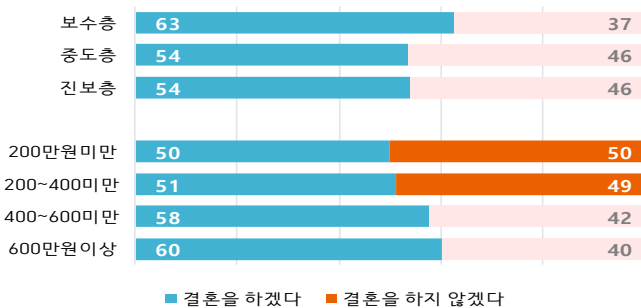
결혼적령기고,결혼여부 선택할 수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 (자료:케이 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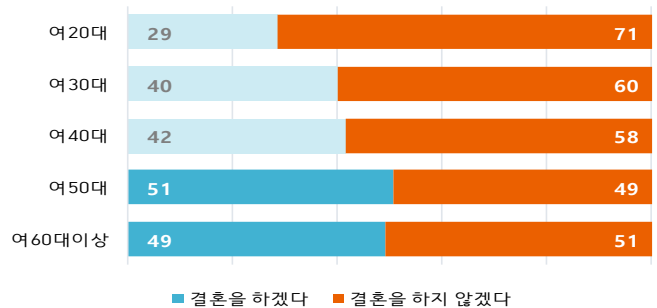
결혼적령기고,결혼여부 선택할 수 있다면 :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결혼적령기고,결혼여부 선택할 수 있다면 :이념별소득별 (단위:%)



결혼적령기고,결혼여부 선택할 수 있다면 :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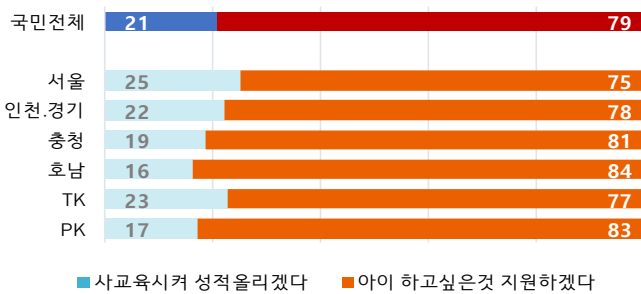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결혼에 대한 남녀간의 생각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
 - : 전반적으로 남성은 ‘결혼을 하겠다’는 의견이 높는데 비해, 여성은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의견이 높음
- ☑ 여성만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 수록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 - : 여자 20대는 ‘결혼을 하지 않겠다’는 의견이 71%로 압도적임
- ☑ 이러한 경향은 지난 **케이 스탯 리포트 9호 [결혼과 출산 관련 국민 가치관 분석]**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로 결혼 자체보다 결혼에 따른 ‘출산과 양육’을 전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분석됨
 - : 해당 조사에서 여자 2030세대는 ‘결혼과 가족’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‘출산과 양육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남성들과 대비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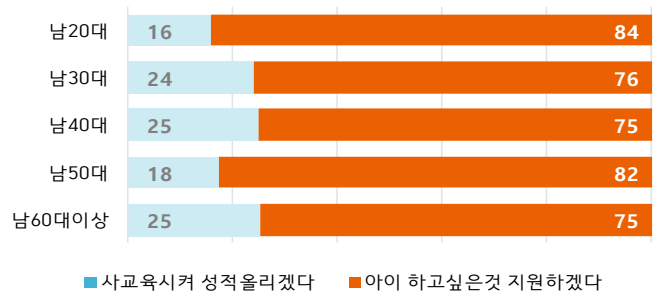
※ **고등학생 자녀 둔 장년 : '성적' 21% vs '하고싶은 것' 79%**

- ▶ “만약에 내가 장년이고(40.50대)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공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’는 응답이 79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겠다’는 응답은 21%에 그침
- ▶ 전 계층에 걸쳐 ‘공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’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호남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20대, 남자 50대 △여자 30대 등임
- ▶ ‘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겠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서울 △남자 40대, 60대이상 △여자 50대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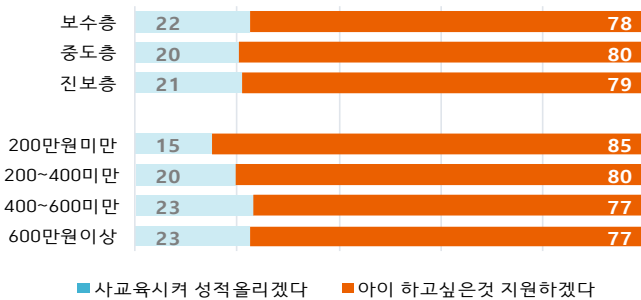
장년이고,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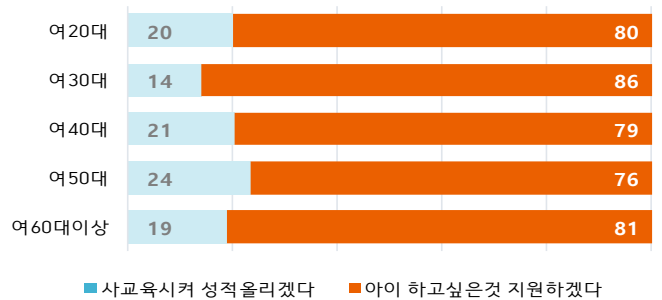
장년이고,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: 남자연령별
(단위:%)



장년이고,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: 이념별, 소득별
(단위:%)



장년이고,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: 여자연령별
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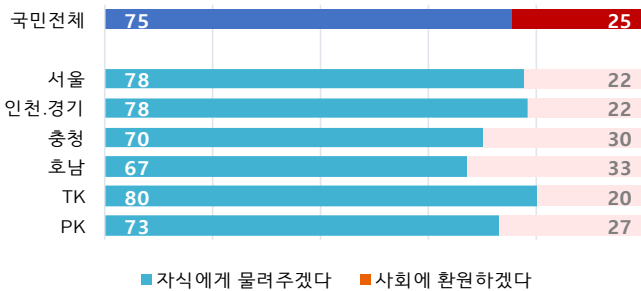
- ☑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아이 교육 및 장래 진로에 대해 ‘아이가 하고 싶은 것 지원’이라는 입장을 피력함 : 이러한 응답은 전 계층에 걸쳐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통된 의견으로 보임
- ☑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, 초중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7%이고, 예체능·취미·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44%로 비교적 ‘아이가 하고 싶은 것 지원’ 비중이 높음(자료, 교육부-통계청 [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])
- ☑ 하지만 고등학생만 놓고 보면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0%인데 비해, 예체능·취미·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15%에 불과함
- ☑ 이렇게 볼 때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다소 당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

※ 재산 있는 노년 : '자식에게' 75% vs '사회환원' 25%

- ▶ 우리 국민들은 재산이 있는 노년일 경우,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
- ▶ “만약에 내가 노년(70,80대)이고, 재산이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‘재산을 자식에게 물려 주겠다’는 응답이 75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 - ‘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’는 응답은 25%에 불과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‘재산을 자식에게 물려 주겠다’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TK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남자 3040세대 △여자 30대 등임
- ▶ ‘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충청, 호남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50대 △여자 60대이상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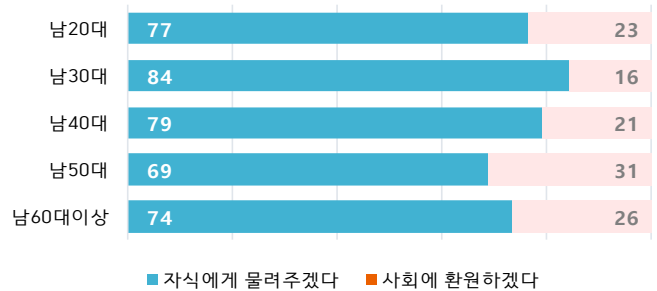
노년이고, 재산이 있다면 : 국민전체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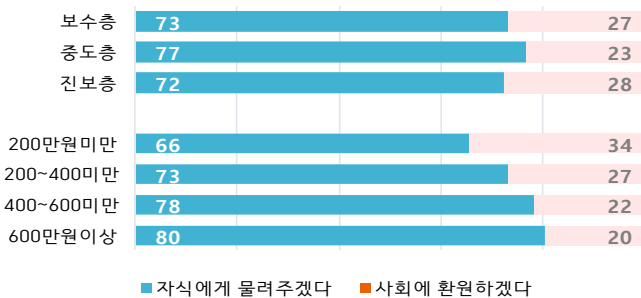
노년이고, 재산이 있다면 : 남자연령별

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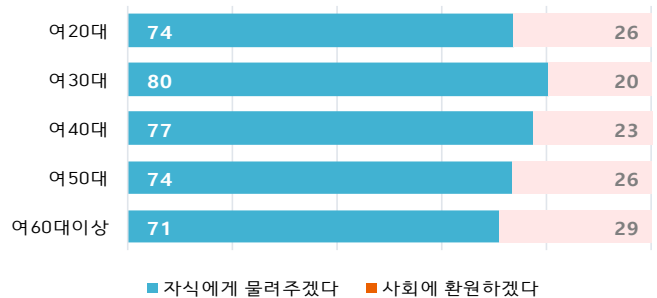
노년이고, 재산이 있다면 : 이념별,소득별

(단위:%)



노년이고, 재산이 있다면 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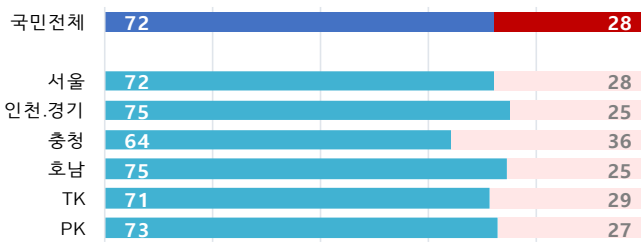
- ☑ 재산이 있는 노년일 경우 사회에 환원하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국가·사회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: 자신이 국가·사회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사회환원을 생각하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회에 환원할 이유가 없을 것임
 - : 이는 앞서 '만약에 태어날 때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'이라는 질문에 '대한민국 선택' 응답이 53%에 그친 결과의 연장선에서 이해 가능함
- ☑ 또한 사회전체 행복보다 가족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국민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
 - : 우리 국민은 평소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'가족 행복'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내 개인 행복', '사회전체 행복' 순으로 응답함(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5호 [사회.가족.개인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] 참고)

▣ 만약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?

※ '지구온난화 문제 해결' 72% vs '북한 핵 문제 해결' 28%

- ▶ 우리 국민들은 '지구온난화 문제'와 '북한 핵 문제' 중에서 '지구온난화 문제'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- ▶ "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지구온난화 문제 vs 북한 핵 폐기 중 선택한다면?"이라는 질문에 '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'는 응답이 72%로 높았고, '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'는 응답은 28%에 그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'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'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진보층 △남자 40대 △여자 2040세대 등임
- ▶ '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충청 △보수층 △남자 60대이상 등임

지구온난화vs북한핵:국민전체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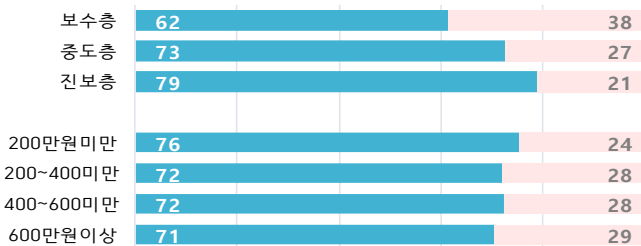
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■ 북한 핵 문제 해결

지구온난화vs북한핵:남자연령별
(단위:%)



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■ 북한 핵 문제 해결

지구온난화vs북한핵:이념별소득별
(단위:%)



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■ 북한 핵 문제 해결

지구온난화vs북한핵:여자연령별
(단위:%)



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■ 북한 핵 문제 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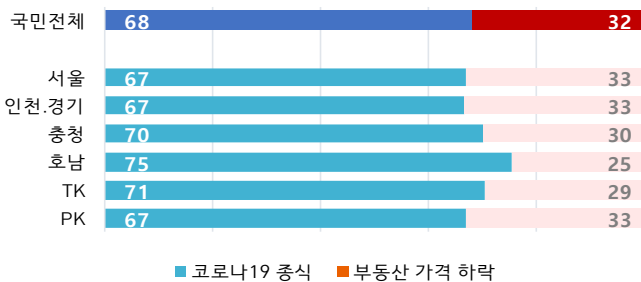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'지구온난화'와 '북한 핵' 중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'지구온난화'로 나타나, '지구온난화'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
- ☑ 한편,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'안보 불감증'이라는 지적도 제기됨
: 외국 언론 등에서는 북한 핵 및 전쟁 위험성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도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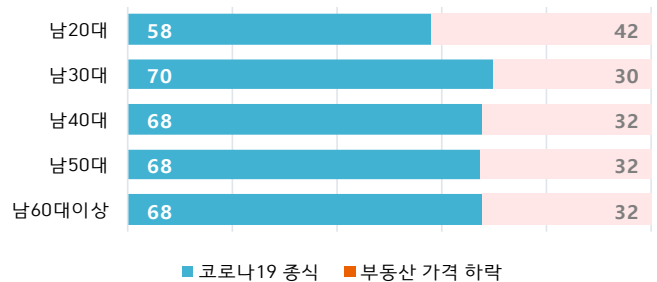
※ '코로나19 종식' 68% vs '부동산 가격 하락' 32%

- ▶ 국민들은 '코로나19 종식'과 '부동산 가격 하락' 중에서 '코로나19 종식'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'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나는 현재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 중에서 선택한다면?'이라는 질문에 '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'는 응답이 68%로 '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'(32%)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됨
- ▶ 전 계층에 걸쳐 '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'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호남 △여자 20대, 여자 60대이상 등임
- ▶ '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보수층 △남자 20대 △여자 40대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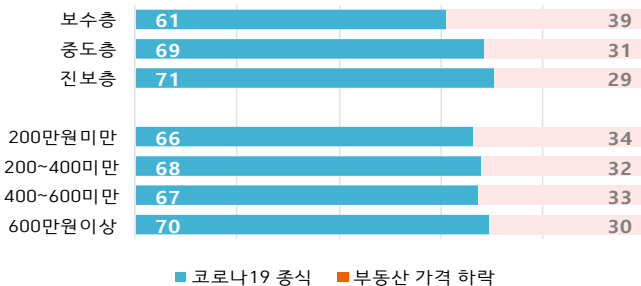
(무주택자 상황)코로나19 종식 vs 부동산가격 하락 : 국민전체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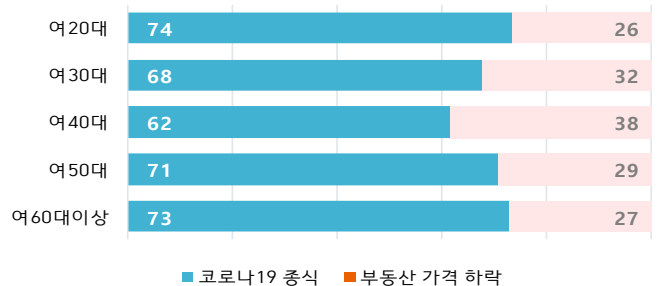
(무주택자 상황)코로나19 종식 vs 부동산가격 하락 : 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(무주택자 상황)코로나19 종식 vs 부동산가격 하락 : 이념별·소득별 (단위:%)



(무주택자 상황)코로나19 종식 vs 부동산가격 하락 : 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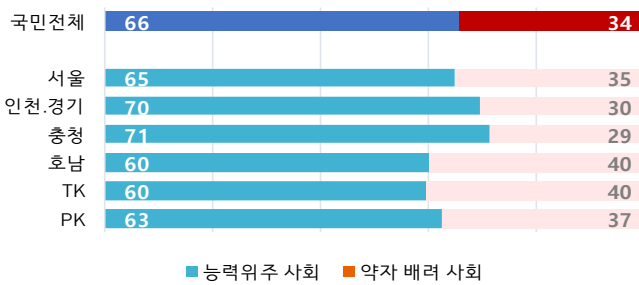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️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 중 현 시기에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나타남
- ☑️ 하지만 '부동산 가격 하락'이라는 의견 32%는 결코 적은 수치라 할 수 없음
 - ▶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간 일상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'코로나19 종식'보다 '부동산 가격 하락'을 선택한 국민이 32%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분석됨
- ☑️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급격히 분출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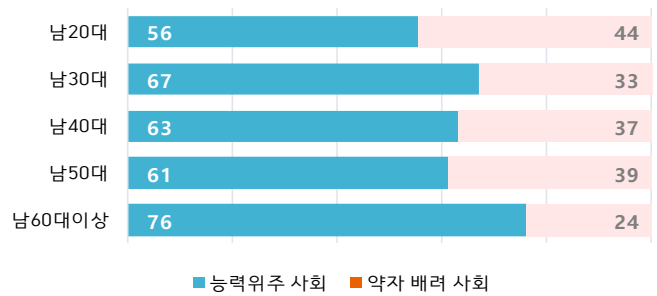
※ '능력위주 사회' 66% vs '약자 배려 사회' 34%

- ▶ 국민들은 '능력위주 사회'와 '약자 배려 사회' 중 '능력위주 사회'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"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출생을 앞두고 있는데 부자 집에 태어날지,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규칙을 만들수 있다면?"이라는 질문에 '집안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위주 사회를 만들겠다'는 의견이 66%로 높게 나타남
 - '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배려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'는 의견은 34%임
- ▶ 대부분의 계층에서 '능력위주 사회'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충청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남자 60대 이상 △여자 50대 등임
- ▶ '약자 배려 사회'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호남, TK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20대 △여자 20대 등임
 - 여자 20대는 '능력위주 사회'와 '약자 배려 사회'가 공히 50%로 똑같이 나타남
 - 남자 20대는 '능력위주 사회' 56% vs '약자 배려 사회' 44%로 비교적 격차가 적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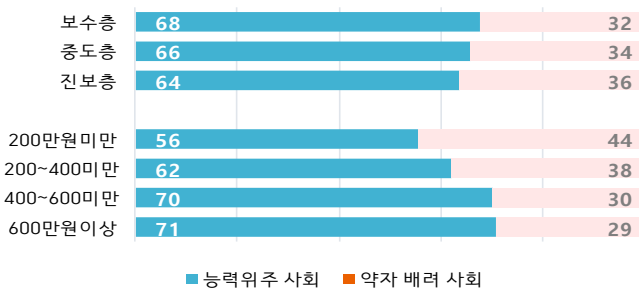
(출생앞두고)능력위주사회vs약자배려사회 : 국민전체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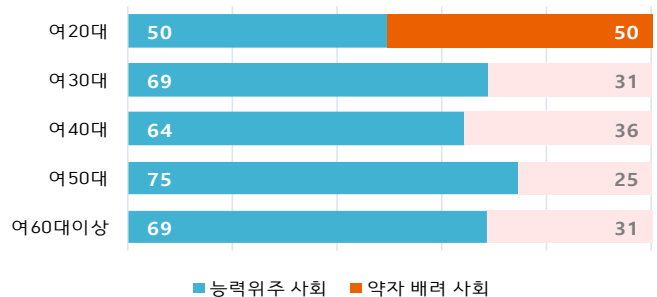
(출생앞두고)능력위주사회vs약자배려사회 :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(출생앞두고)능력위주사회vs약자배려사회 : 이념별 소득별 (단위:%)



(출생앞두고)능력위주사회vs약자배려사회 :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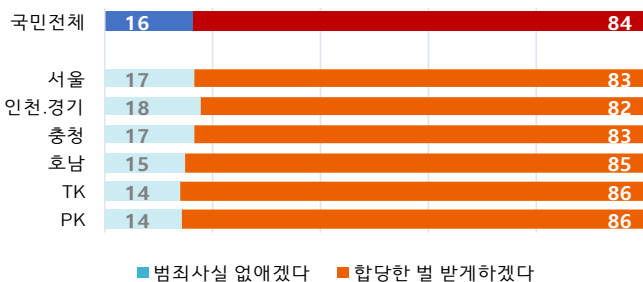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, 그 원인으로 '빈부의 대물림'이 지적되고 있음
 - : 즉, '부모의 종착역이 자식의 출발역'이 되는 현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
 - : 이에, 선진국 등에서는 빈부(가정환경)와 무관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노력과 더불어 '사회적 약자'를 의무적으로 배려하는 정책(대학 특례 입학 등)을 펴고 있음
 - :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회균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
- ☑ 하지만 국민전체 여론이 '능력위주 사회'에 대한 선호가 높아 자칫 빈부의 대물림이 강화될 우려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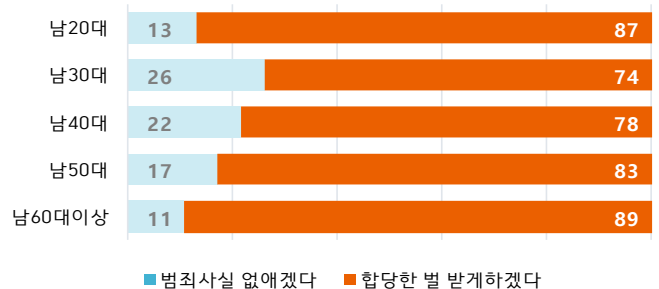
※ '아이 범죄사실 없애겠다' 16% vs '합당한 벌 받게' 84%

- ▶ 국민들은 자신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'범죄사실 없애겠다'와 '합당한 벌 받게 하겠다' 중에서 '합당한 벌 받게 하겠다'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'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부모인 상황에서 아이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?'이라는 질문에 '사회 정의를 위해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다'는 의견이 84%로 높게 나타남
- '아이 미래를 위해 범죄사실을 깨끗하게 없애겠다'는 응답은 16%에 그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'합당한 벌 받게 하겠다'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△남자 60대이상 △여자 20대, 여자 40대 등임
- ▶ '아이 범죄사실 없애겠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남자 3040세대 △여자 60대 이상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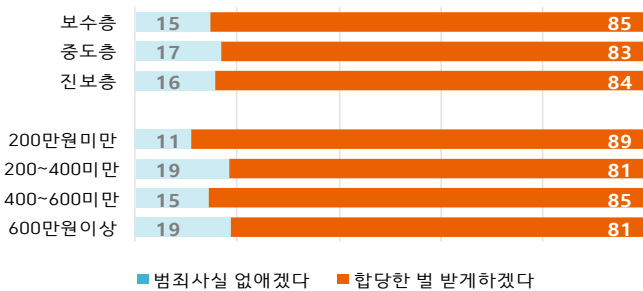
(아이 큰 범죄시)사실 없애겠다 vs 합당한 벌 : 국민전체지역별 (자료:케이 스탯 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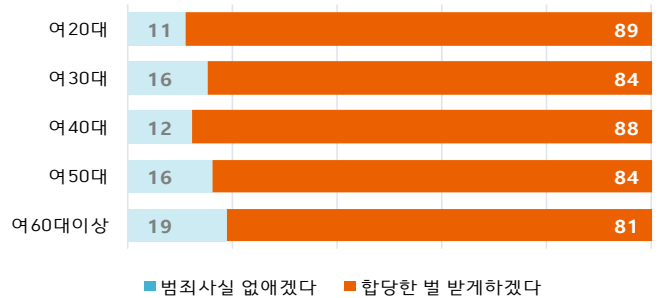
(아이 큰 범죄시)사실 없애겠다 vs 합당한 벌 : 남자연령별 (단위:%)



(아이 큰 범죄시)사실 없애겠다 vs 합당한 벌 : 이념별 소득별 (단위:%)



(아이 큰 범죄시)사실 없애겠다 vs 합당한 벌 : 여자연령별 (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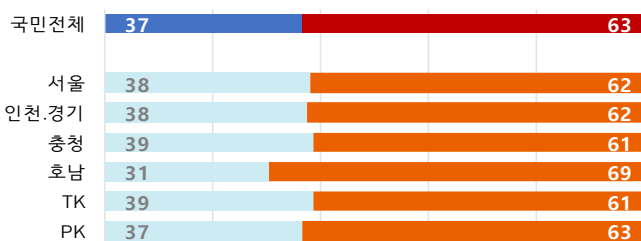
- ☑ 국민 절대다수는 아무리 무한한 능력이 있더라도 아이가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'사회 정의를 위해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다'는 입장이 확고해 보임
 - :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'공정'에 대한 국민적 선호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
- ☑ 다만, '자식의 미래를 위해 범죄사실을 없애겠다'는 의견이 20% 이상을 기록한 남자 3040세대의 의견이 보다 현실적인 응답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
 - :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부모의 비호로 인해, 합당한 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반론의 근거임

※ 국회 구성, '능력 뛰어난 서민' 37% vs '서민편 전문가' 63%

- ▶ “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, 국회의원 300명 전체를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면?”이라는 질문에 '전문가지만 서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국회를 구성하겠다'는 의견이 63%로 높게 나타남
- '보통의 서민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국회를 구성하겠다'는 응답은 37%로 나타남
- ▶ 전 계층에 걸쳐 '서민편 전문가'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호남 △남자 20대 등임
- ▶ '능력 뛰어난 서민'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△남자 40대 등임

국회구성,서민 vs 전문가: 국민전체,지역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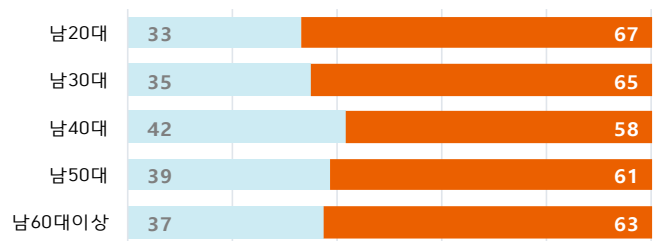
(자료:케이스탯,2020.12.06조사,단위:%)



■ 서민이지만 능력뛰어난 사람 ■ 전문가지만 서민편 사람

국회구성,서민 vs 전문가: 남자연령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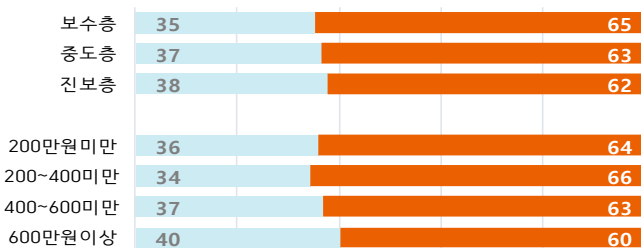
(단위:%)



■ 서민이지만 능력뛰어난 사람 ■ 전문가지만 서민편 사람

국회구성,서민 vs 전문가: 이념별,소득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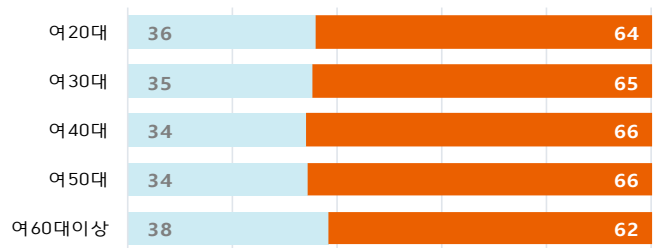
(단위:%)



■ 서민이지만 능력뛰어난 사람 ■ 전문가지만 서민편 사람

국회구성,서민 vs 전문가: 여자연령별

(단위:%)



■ 서민이지만 능력뛰어난 사람 ■ 전문가지만 서민편 사람

Kstat Point

- ☑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, 즉 기성 엘리트 정당·정치인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
 - : 유럽의 경우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하고 있으며, 프랑스의 경우 신생정당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서 보듯, 기성 정당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음
- ☑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, 케이스탯 리포트 13호 [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관련 국민 의식 분석] 중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성 엘리트 정당·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고함
 - : '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', 동의 25% vs 비동의 71%
 - : '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', 동의 71% vs 비동의 26%
- ☑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,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 엘리트 정당·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과 달리 '능력 뛰어난 서민'보다 '서민편 전문가'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☑ 각 정당에서도 후보 공천 등에 있어 이러한 국민 여론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12월 4일(금) ~ 12월 6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110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4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20호는 “2021년 1월 14일”에 발행됩니다.